

6. 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김정은  
원수님께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로를 따라 질풍노도처럼 나아가는 역사적인 시기에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전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온 나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비범한 정치실력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주체혁명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키시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우리 공화국을 필승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위용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한 력사의 이 시각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다함없는 경모와 불타는 총정의 마음을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우리 공화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공고발전시키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세계만방에 떨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와 신뢰심의 표시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려는 천만군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끝없는 감격과 기쁨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충직하게 받아들여갈 혁명적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고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이 땅우에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가 6월 29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만수대의 사당 회의 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의장석에 앉았다.

최태복의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함에 대하여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구성함에 대하여

4.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

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용에 대하여

6. 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한 보고를 양형섭대의원이 하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을 승인함에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연설을 김영남대의원이 하였다.

그는 전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

이 추대할것을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데 대한 제의는 전체 대의원들과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회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회의장을 진감하였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제의에 따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황병서대의원, 박봉주대의원, 최룡해대의원,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김기남대의원, 박영식대의원, 리수용대의원, 리만건대의원, 김영철대의원, 김원홍대의원, 최부일대의원, 리용호대의원이 선거되었다.

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보고를 박봉주대의원이 하였다.

이어 김만수대의원, 리무영대의원, 김충걸대의원, 리철만대의원, 김수길대의원이 토론하였으며 리충길대의원, 리영철대의원, 김기성대의원, 양승호대의원, 윤재혁대의원, 김진국대의원, 강영철대의원, 최일룡대의원, 김경준대의원, 리광근대의원이 서면토론을 제기하였다.

넷째 의정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에 대한 최

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용에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여섯째 의정인 조직문제가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의에 따라 태종수대의원을 직무변동과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김영철대의원, 박태성대의원, 주영길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의 제의에 따라 리주오, 리룡남대위원을 내각부총리로, 고인호를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으로 임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박명철대위원을 직무변동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소장,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강윤석대위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소장,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하였다.

최태복의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특사일행을 접견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6월 30일 라울 까스트로 루쓰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의 특사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쌀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싸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과 일행을 접견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특사일행과 상봉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특사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이번 방문은 조선과 쿠바 두 당, 두 나라 관계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쿠바공산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라울 까스트로 루쓰동지가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로 다시 선거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쌀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싸동지가 쿠바공산당 제7차대회 진행정형을 조선로동당에 상세히 통보해주어 우리는 쿠바공

산당이 중시하고있는 문제들에 대하여서와 반제사회주의위업의 기치를 변함없이 들고나가려는 쿠바당과 정부, 인민의 의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쿠바공산당 제7차대회는 쿠바공산당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쿠바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는 쿠바당과 인민에게 전투적인사와 뜨거운 포용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과 쿠바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의 한전호속에서 싸우고있으며 쿠바당과 정부, 인민의 결에는 항상 조선로동당과 정부, 인민이 서있다고 하시면서 조선과 쿠바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쌀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싸부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보내는 퍼델 까스트로 루쓰동지와 라울 까스트로 루

쓰 제1비서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리었다.

그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체류일정에 대하여 깊이 관심해주시고 오 늘은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접견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었다.

그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열렬히 축하하는 라울 까스트로 루쓰동지의 따뜻한 인사를 직접 전하여드리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퍼델 까스트로 루쓰동지와 라울 까스트로 루쓰동지와 함께 마련하여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와 라울 까스트로 루쓰동지의 각별한 관심속에 공고발전되고있다고 하면서 쿠바와 조선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쿠바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쿠바공산당 제7차대회에서 쿠바가 사회주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사회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쿠바혁명을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지지해온 조선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과의 련대적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다시한번 강조되었다고 말하였다.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담화에서는 조선로동당과 쿠바공산당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문제들과 두 당, 두 나라에서의 당활동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호상 통보되고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들이 진지하게 교환되었으며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를 같이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라울 까스트로 루쓰 제1비서가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온 선물을 쌀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싸부위원장이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특사일행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얼마전 공화국은 지상대지 상중거리전략도로케트 《화성-10》 시험발사에서 성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천동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날아오른 탄도도로케트는 전방의 예정된 목표구역에 정확히 착륙되었다. 이로써 세계를 현대화한 우리 식 탄도도로케트의 기술적능력이 완전히 검증확인되었으며 앞으로의 전략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확고한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시험에서 세계를 놀래운 것은 고각발사체제를 리용하여 주변국가의 안전에 사소한 영향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목적한 무기의 성능을 충분히 검증한것이다.

이것은 자기가 개발한 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행할수 없는 시험이다. 공화국이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한것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보여준것이다.

지난 6월 20일 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담화에서 《우리 군대는 (B-52H) 전략폭격기가 리용하는 팜도의 앤더슨공군기지와 핵동력잠수함이 발진하는 해상침략기지들을 포함하여 미국의 대조선침략 및 병참보급기지들까지 정밀타격권안에 잡아넣은지 오래다.》고 언명한것이 사실임을 적대세력들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서 깨달았을것이다. 태평양상에 있는 미군기지와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들이 모두 《화성-10》의 타격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 천출명장을 모시여 무적의 핵강국으로

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시험발사에서 탄도도로케트의 대기권재돌입능력이 과시된것도 행성에 충격을 주고있다.

전략탄도도로케트 《화성-10》은 대기권을 훨씬 벗어난 고도 1413.6km까지 올라갔다. 대기권에 재돌입하면서 해당 목표에 정확히 날아가 떨어졌다. 이 과정에 전투부가 가해지는 수천도의 열과 초고압에도 견디어내고 정상상태에서 목표물을 맞히는 기술적능력이 충분히 검증확인되었다.

공화국은 이미 지난 3월에 지상에서 탄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을 진행하여 모든 기술적지표들을 만족시켰었다. 이번에 실제로 재돌입구간에서의 전투부 열전도특성과 비행안정성을 검증함으로써 대륙간탄도도로케트의 기본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공화국의 핵공격능력은 더한층 강화되게 된것이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려면 적들을 항시적으로 위협할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을 가져야 한다. 수소탄을 비롯한 위력한 핵과 다양한 운반수단들의 개발이 바로 침략세력의 손발을 묶어놓을수 있는 그러한 공격수단이다.

6월은 미국에 의해 조선에서 전쟁의 포성이 터진 달로 력사

에 기록되어있다.

66년전 미국은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고 전쟁전기간 잔인무도한 폭격, 포격으로 수많은 우리 겨레의 목숨을 앗아가고 이 땅을 재더미로 만들었다. 미국의 원자탄 공갈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오늘까지 생사여부도 모르면서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전쟁시기 미국의 핵에 보충으로 맞서싸워서도 전승의 신화를 창조했던 공화국은 지금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아있다.

만일 미국이 조선전쟁에서 당한 패전의 쓰디쓴 교훈을 망각하고 북침전쟁도발소동에 매달리며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건드린다면 자위의 강력한 핵무력에 의해 미국땅이 통채로 불바다에 잠기게 될것이며 중국적과멸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화성-10》의 시험발사에서 성공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견결한 조국수호의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귀중한 결실이다. 국방과학기술발전과 첨단무장장비개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그의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무기가 련이어 태어나 나라의 방위력이 백방으로 강화되고있는것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뜻깊

은 올해 서막을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제끼고 주체조선의 국방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승전포성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리시여 세계를 경탄시키시었다.

이번 《화성-10》 발사 당일에는 몸소 수백리 밤길을 달려 발사장을 찾으시고 시험발사 전 공정을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으며 성공하였을 때에는 그리도 기쁘시여 일군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고 시험발사에 참가한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전략탄도도로케트 시험발사에서 온 우리가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던 그의 기쁨넘친 모습, 이것은 선군조선의 힘을 최상최대로 강화시켜주시고 지구상악의 근원인 제국주의미국을 최후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가시는 천출명장, 절세의 애국자의 자신만만하고 승리감에 넘치는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진정 강철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배짱과 담력으로 공

화국을 그 어떤 대적도 덤벼들수 없는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은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고 창조와 변혁의 거장이

시다. 그것을 모시여 공화국은 못해낼 일이 없고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의 날도 반드시 온다. 이것이 행성에 울린 6월의 장쾌한 퇴성을 들으면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누구나가 느끼는 진실한 감정이며 굳은 확신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근본적으로 달라진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와 시대적흐름을 똑바로 보고 더 늦기 전에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동방의 신진핵강국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고있는 주체조선의 푸른 하늘가에 또 하나의 승전포성이 힘차게 울려 퍼졌다.

날에 날마다 비상이 강화되는 우리의 무진막강한 국방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만리대풍으로 솟구쳐오른 중거리전략탄도도로케트 《화성-10》 발사의 장쾌한 메아리는 이 시각도 전세계를 뒤흔들며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있다.

6월의 대성공이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감히 건드리려는자들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완전히 초토화해버린다는 우리 천만군민의 불굴의 의지와 자력자강정신의 위대한 결실이며 민족사에 길이 빛날 중대사변이다.

이로써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우리의 선제공격능력이 더 높은 경지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최강의 핵보유국으로서 우리의 전략적지위는 더욱 현실화되었다.

조선로동당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확증한 이 경이적인 사변을 두고 온 세계가 《핵능력과도화의 획기적발전》, 《류레없는 고난도고각발사기술의 과시》, 《조미대결의 전략적구도를 완전히 바꾸어놓은 일대 사변》 등으로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우리 민족, 우리 겨레의 자긍심은 하늘에 닿고있다.

그러나 대조선적대의식이 골수에 밴 미국이 또다시 《유엔결의위반》이요,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요 뉘오 하며 고아대고 이에 일본 반동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합창해나서고있는가 하면 심사가 뼈뿔어질대로 뼈뿔어질 핵근해태당 역시 세계가 선망하는 눈으로 우리를 민족의 대경사를 함께 기뻐하기는

고사하고 숨넘어가는 비명을 내지르며 못되게 놀아내고있다.

지어 다 쟁진 제재와 압박의 북풍을 계속 소란스럽게 두드려대고 그 어떤 힘으로도 당할수 없게 치솟는 동족의 용용도 기상을 뻗히 보면서도 《고립과 자멸을 자초하게 될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악담까지 련속 토해내고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전도에서 비상한 전환이 일어나고 전면적인 정세흐름이 달라지고있는 엄연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는 미국과 박근혜당을 비롯한 온갖 추종세력들의 면전에 몇가지 명백히 할것이 있다.

《화성-10》의 대성공은 중거리전략탄도도로케트에 의한 주체적인 핵선제타격태세의 완성과 조선반도 정세흐름의 근본적인 변화를 실현으로 선고한 사변적인 계기이다.

지금까지 조선반도정세는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병탄하고 아시아태평양양지역에 대한 지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일방적인 위협공갈과 그로 인해 초래된 군사적초긴장의 련속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흐름의 공식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지 오래다.

우리의 핵보유와 중거리전략탄도도로케트에 의한 현실적인 핵선제공격태세앞에서 미국자신이 고민하고 미국자신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갈 출로를 새롭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다.

우리의 핵보유와 중거리전략탄도도로케트에 의한 핵선제공격태세의 완성은 결코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반고 그 어떤 협상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낸 흥정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튼튼히 지키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와 땀을 바쳐 버려낸 완벽한 정의의 보검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대한 위협과 공갈이 일본본토와 오키나와에서 오는 팜도와 하와이에서 오는 미국본토에서 오든 그 모든것을 사전에 제압하고 초토화해버리게 될것이 우리의 핵무력이요 중거리전략탄도도로케트의 무진막강한 위력이다.

그 누가 인정하던 안하던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탄을 가진 핵보유국이며 우리 식의 중거리전략탄도도로케트까지 장비한 당당한 군사대국이다.

미국과 박근혜당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이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가 보란듯이 솟구치며 지구를 뒤흔든 《화성-10》의 장쾌한 포성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 남조선괴뢰들이 합창하는 제재와 압박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대답이다.

지금 사회주의문명국의 리상향, 세상에서 제일로 강성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질풍노도처럼 내달리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미국과 괴뢰당은 물론 온갖 적대세력들이 메를 지어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그 수위와 강도로 보나 그 성격과 내용, 방법으로 보나 것처럼 전면적이고 잔인무도한 제재와 압박을 받아본 나라는 인류사에 전무후무할것이다.

하지만 그 제재와 압박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바로 창공에 치솟은 《화성-10》의 눈부신 불기둥이다.

그 어떤 천고만년도 자주와 존엄

으로 빛나는 영광의 래일에 살려는 우리의 전진을 결코 멈춰세울수 없으며 그 어떤 살인장비로도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다는것을 현실은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밀바진 독에 물붓듯이 제재와 압박이라는 미궁을 향해 혼신을 깡그리 쏟아넣어보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미국과 박근혜당자신이 제재와 압박의 덫에 치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만리대풍을 헤가르는 《화성-10》의 황홀한 자태와도 같이 이 나라는 세계최정상으로 무섭게 솟구쳐오를것이다.

서툰 재간에 범잡으려다 제가 잡혀죽는 어리석은 포수처럼 미국과 괴뢰당이 제재니, 압박이니 하는 가소로운 놀음에 매달릴수록 더욱 서술푸른 주체의 최첨단타격수단들이 자신들의 명줄을 겨누고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화성-10》의 대성공은 대세의 흐름에 여행하고있는 미국과 박근혜당에게 달라진 상대의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보고 오늘의 중대시점에서 바른 선택을 하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엄숙한 경고이다.

우리의 핵능력과도화가 현실로 립증되고 우리 공화국이 세계가 공인하는 최강국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고 있는 오늘 우리를 대하는 미국과 주변나라들의 전략적시각과 정책방향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괴뢰당은 의연히 우리의 핵능력강화가 그 무슨 《고립》과 《자멸》을 초래한다고 잠꼬대같은 궤변을 내지르고있다.

하지만 지금 가는 곳마다에서 고립되고 배격당하는것은 사실상 세계도처에서 강건과 전횡을 휘두르며 퍼비린나하는 미국을 불러온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다.

특히 박근혜당은 하루가 다르게 비약하는 우리의 국력앞에 흔히 백산하여 상전의 바지가랭이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여기저기를 떠돌며 《대북공조》를 입이 아프도록 외워대고있다.

이자체가 고립과 패배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의 물결이 아니라 만민가.

오늘의 세계정치는 강자들의 무대이며 가장 강력한 언어는 상대를 제압할수 있는 무진막강한 힘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이 다 지켜본 《화성-10》의 발사과정과 그 성공소식조차 똑똑히 알지 못하고 허튼소리를 주어설기다가 개망신당한 괴뢰들이 바람앞의 등불신세와 같은 저들의 처지에 대한 두려움을 모면해보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고있지만 대세는 되돌려세우기 어렵게 되어있다.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최후통첩을 이미 여러번 보낸바 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우리의 전략적지위와 정세변화의 본질을 바로 보고 더 늦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과거를 불문하고 조국통일과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해 동반자로 불러주며 통일의 역사를 새롭게 쓰자고 내밀어준 우리의 선의의 손길을 잡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차례진 운명전환의 기회마저 영영 사라져버린다는 충고를 남조선당국은 깊이 새겨듣는것이 좋을것이다.

주체적핵보검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사수하며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주제105(2016)년 6월 30일 평 양



# 통일의 려명 빛발친다

민족자주위업완성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펴생의 뜻과 념원은 조국통일이였다.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된 때로부터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내놓으시고 민족의 자주와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신 수령님이시였다.

어느날 민족과 회로에락을 함께 하시며 걸어오신 자신의 80평생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는 자리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오늘 한가지 나의 마음에 걸리는것은 통일된 조국에서 다 같이 행복을 누리려는 겨레의 념원을 풀어주지 못한것이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공동의 숙원인 동시에 민족앞에 다진 나의 맹세이기도 하다.

반드시 조국과 민족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숭고한 책임감을 지니신 그이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얼마나 불면불휴의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였는가를 우리 겨레는 지금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지난 1990년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80고령을 전후한 시기이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고령의 년세에도 더 완강히, 더 정력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한몸을 초탈처럼 태우시였다. 조국통일의 책임을 다하는 길에서 조금도 물러설수 없으시였고 통일을 위하여서는 잠시나마 휴식할수도 편히 잠을 잘수도 없다는 스스로의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지켜오시였다. 그 무렵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였고 민족분렬사에 처음으로 되는 사변적인 북남최고위급회담의 길을 열어놓으시였으며 남녘

의 각계층동포들을 만나시여 허심탄회하게 통일론의도하신 수령님께서 통일조국건설의 밝은 전도를 락관하고 계시였다.

열렬한 민족애와 특출한 정치적수완, 통이 큰 아량과 대범한 용단, 숭고한 덕망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결정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그이의 불철주야의 로고와 심혈에 의하여 마침내 1994년 7월 평양에서 분렬사상 처음으로 되는 북남최고위급회담이 일정에 오르게 되였다.

조국통일에 대한 가슴부푼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는 희소식에 온 민족은 북남최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면서 통일열기로 불도가니마냥 들끓었다. 앞으로 《김일성주석님께서 서울에 오시면 아마 500만명이상이 거리에 뛰쳐나와 환영할것이며

그때 주석님께서 하시는 연설을 30분동안만 방송으로 생중계하면 몇달안으로 통일이 될것이다.》라고 남녘동포들이 열광하였고 《주석님의 령도에 의하여 분단의 력사를 통일의 력사로 바꾸는 민족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것이다.》라고 해외동포들이 흥분을 토로하였다. 북남최고위급회담을 가질데 대한 수령님의 대용단은 단순히 수뇌상봉과 관련한 정치실무적결정이 아니였다. 북과 남사이에 두렵게 얼어붙은 얼음장을 녹이는 조국통일의 새봄이 도래하고있음을 알리는 중대한 민족사적결정이였다. 하기에 남녘의 문익환목사는 통일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며 완료형이라고 자기 심정을 토로하였던것이다.

민족의 앞길에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은 바야흐로 펼쳐지고있었다. 북남최고위급회담

개최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던 어느날 아버지수령님께서 밤을 꼬박 새우시며 문건을 보고 또 보시였다. 사색에 사색을 이으시며, 조국통일의 날을 그리시며 문건을 종결하신 그이께서는 활달한 필치로 《김일성 1994.7.7.》

이라고 쓰시였다. 그 문건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게 될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문건이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동녘하늘을 물들이는 장쾌한 아침노을을 바라보시며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로 고대하던 조국통일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왔다고 감개무량한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에는 겨레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조국통일의 민족사적사변이 마련되고있다는 굳건한 확신이 가득차있었다.

조국통일의 려명을 안아오시려 그이께서 심장의 마지막박동까지 다 바치신 심혼이 어린 친필을 형성한 비가 판문점에 솟아 빛나고있다.

친필비에 새겨진 수령님의 친필은 아홉자밖에 안되지만 그 글발에 담겨진 뜻은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참으로 많은 뜻을 담고있다. 그 친필에는 수령님의 강한 통일의지와 신념이 함축되어있고 조국통일을 위한 수령님의 심혈과 로고가 응결되어있다. 그것은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통일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수령님의 로고와 헌신에 대한 고귀한 증표이며 그 글발이 새겨진 친필비는 조국통일성업실현에 쌓으신 수령님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력사의 공적비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바치시여 통일위업실현에 쌓으신 업적은 통일조국건설의 영원불멸할 초석으로 된다.

수령님의 마지막친필의 자자구구에 어려있는 통일념원과 유혼을 높이 받드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철석의 의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새 세계 자주통일의 6.15시대 가열리게 되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격변하는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자주통일의 명맥은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펴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삼천리강토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건설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온 겨레와 세계가 지켜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하시면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 실현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방침으로 천명하시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관철하여 장장 70여년에 걸친 민족분렬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통일에국의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통일에국의 호소따라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펼쳐나신 겨레의 앞길에 아버지수령님께서 남기신 고귀한 친필이 통일의 려명마냥 찬란히 빛발치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 제 일 큰 소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은 곧 자신과 온 민족의 념원이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였다. 그 념원, 그 사랑이 수령님의 펴생의 위업에 그대로 판통되어있었다.

주체61(1972)년 5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 평양을 방문한 미국 《뉴욕 타임스》 기자들을 만나시였다.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

고 민족의 통일열기가 비상히 고조되고있던 그 무렵 미국언론인들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에 명쾌한 대답을 주신 수령님께서서는 당신들은 내가 우리 인민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가고 하였는데 그것은 조국의 통일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을 선물로 안겨주는것, 이것은 아버지수령님의 한평생 가장 큰 소원이였다.

### 민족단합문제와 다부작영화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것을 종자로 한 다부작에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창작되어 사람들속에 커다란 인기를 모으고있던 주체81(1992)년 5월 어느날 창작가들과 자

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의 운명문제에 대한 예술적해명을 깊이있게 그린 작품의 예술적형상에 대해 진지하게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민족과 운명》의 련속편에서는 민족주의자, 종교인, 기업가를 비롯하여 각이한 인생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운명문제를 취급하도록 할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한때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신의 안락

### 확고한 결심과 의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년이나 외세에 의하여 분렬의 고통과 불행을 겪고있는것은 더이상 참을수 없고 용납할수 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나라와 민족마다 경쟁적으로 진보와 발전을 지향하고있는 오늘날 우리 민족이 북과 남에 갈라져 서로 반목하며 대결하는것은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자멸행위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

과 영달을 위해 동분서주해온 사람,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진 사람도 있을수 있지만 그가 어떤 길을 걸었던 자기의 허물을 반성하고 나라와 민족의 편에 돌아선다면 애국의 길을 걸게 된다는 것을 예술적화폭에 담아야 한다는 가르치심

이였다.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온 민족의 마음속에 민족의 아버지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남연백벌에 흐른 사랑의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그이의 열화같은 민족애, 동포애를 길이 전하고있다.

주체35(1946)년 해방된 조국강토에 첫보이 왔다. 남연백 1만 3 600여정보의 벌에도 봄기운이 서리어 논두렁이며 산자락에 냉이며 풀들이 돋았다. 그러나 벌에는 사람들이 없었다. 물이 없어 농사를 지을수 없었다. 남연백벌에 물을 대주던 구암저수지, 레의저수지의 물길을 38° 선이 끊어놓았던 것이다. 벌은 남에 있고 저수지는 북에 있었다. 흉악무도한 미군정과 남조선통치배들은 북에서 절대로 물을 주지 않는다며 애간장을 타는 농민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였다. 폐농하게 된 농민들의 한숨소리에 종달새마저 지저귌을 멈춘듯 벌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바로 그 무렵 토지개혁으로 농악소리 높은 북녘땅에서 물줄기가 사뭇치며 남연백벌로 흘러들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남연백벌농민들의 가궁한 정상을 헤아리시여 구암저수지와 레의저수지의 수문을 열게 하신것이였다. 저수지의 물은 그 이듬해에도 남녘으로 흘렀다. 그 물량은 두 저수지 전체 물량의 99%에 달하였다.

북의 동포애적조치는 남녘의 동경심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에 당황망조한 미군정과 남조선지배층은 남연백벌에 흐르는 물줄기를 끊어놓았다.

1948년 봄 씨불임한 남연백벌의 벼모는 누렇게 말라 들고 모를 내지 못한 벌에는 먼지만 날날리였다. 수천수만의 농민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기로에 처하게 되였다.

남녘농민들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 자기들의 어려운 정상을 알려드리고 물을 보내주시길 청드리기로 결심하였고 대표들을 선출하여 그해 5월초 사신을 헤치고 북으로 떠나보내었다.

어느날이였다. 남녘농민들의 편지를 받으신채 안색을 흐리시고 한동안 아무 말씀없

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이윽고 미군놈들이 방해책동을 하고있지만 남연백농민들에게 올해농사에 지장이 없게 물을 보내주도록 할데 대하여 해당 일군들에게 조치하시였다.

하여 얼마후 구암저수지와 레의저수지의 관개용수를 남조선 연백지방에 공급함에 관한 북조선 인민위원회 결정 제155호가 채택되였다. 결정서에는 남조선농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6월 27일부터 구암저수지와 레의저수지의 관개용수를 38° 선 이남 연백지방에 공급한다는것이 지적되어있었다. 6월 26일에 채택된 결정서에는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져있었다.

그이께서 지체없이 보내도록 조치하신 관개용수는 남연백벌만이 아닌 남녘겨레의 마음속에 흘러든 사랑의 생명수였다.

외세에 의하여 강도가 갈라지고 민족이 분렬되었지만 아버지수령님의 마음속에는 북과 남이 따로 없었다. 그이께서 내 마음은 언제나 남조선동포들에게 가있다고 하신것처럼 그이의 마음속에는 남녘겨레가 있었고 남녘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계시였다. 본사기자 류현철

열렬한 동포애로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제5호

주제 105(2016)년 6월 29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오에 대하여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성취하기 위하여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조국통일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왔다.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생애의 전 기간 철저한 민족자주정신과 열렬한 민족애, 고결한 덕망으로 민족의 통일의지를 비상히 높여주시고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펼쳐 주시였으며 불멸의 통일대강을 마련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 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을 내놓으시어 민족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대응단으로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채택 발표하 도록 하시어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을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략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신것은 삼천리강토 위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를 열어 놓은 역사적사변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은 민족의 통일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주제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민족의 자주적운명과 통일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강력하게 조직 전개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온다.
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없앤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평 양

###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보내는

# 공 개 편 지

지금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열망은 더더욱 강렬해지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있습니다.

더는 외면할수 없는 민족사적요청과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념원을 반영하여 지난 9일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석회의에서는 조국해방 일흔한돛을 계기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를 개최할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실천적조치의 일환으로 북측준비위원회가 이미 조직되었습니다.

우리 북측준비위원회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과감히 개척해나가는 숭고한 념원으로부터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들과 개별인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내외가 한결같이 인정한것처럼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새롭게 제시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에는 장장 70여년에 걸친 분렬

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명예가 만방에 빛나는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습니다.

깊어가는 민족분렬의 비극이 그토록 뼈아프고 더는 그대로 넘길수 없는 가슴저린 상처로 남아있는 오늘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소중함을 깊이 자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진지하고 혁신적인 발기와 제안들을 받아들여 동족대결의 극단적상태를 일소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며 조국통일의 출로를 자주적으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열어나가야 한다것은 우리의 드림 없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정경과 신앙,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는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족적량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통일

의 동반자로서 새 출발해나갈수 있다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입니다.

외세에 의한 민족분렬을 막기 위하여 해방정국에서 북과 남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뜻을 같이 하였던것처럼, 통일문제해결을 위해 북남당국을 비롯한 각계층이 협력과 단결의 6.15시대를 개척하여온 것처럼 진정으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그 누구나 우리의 제의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것입니다.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한돛이 되는 올해 8.15를 전후하여 북과 남의 당국과 해외의 정당, 단체대표들, 각 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적대회를 열어 평양이나 개성에서 개최되 회의명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

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로 하자는것입니다.

만약 남측에서 연석회의와 관련하여 시기나 장소, 참가대상과 토의안건 등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인견해를 내놓는다면 그것도 허심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일 충분한 용의가 있습니다.

당면하여 연석회의개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준비위원회를 각 지역별로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전 민족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것이 급선무라고 보면서 남측과 해외에서 그 실천에 속히 착수하기 를 희망하며 7월중에는 합의되는 장소에서 북과 남, 해외대표들을 망라한 전민족공동준비위원회결성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가질것을 제

의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있는 조선반도의 정세흐름과 우리 민족의 발걸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걸음 주춤하면 래일에 가서는 열걸음, 백걸음을 달려도 보상할수 없으며 겨레의 가슴에 새겨지는 불행과 고통의 상처가 배가된다는것을 우리모두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과 해외의 정당, 단체들, 명망있는 인사들이 오늘의 중대국면에서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신들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의 진정어린 제안과 조치들에 적극 호응해나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동로애적인사를 보냅니다.

##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주제 105 (2016)년 6월 27일

평 양

##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를 위한 북측준비위원회 조직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과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북측준비위원회가 6월 27일 평양에서 결성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의 책임일꾼들

이 각각 부위원장, 위원들로 임명되었다.

북측준비위원회는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들, 명망있는 인사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북측준비위원회활동정형에 대한 공보가 발행된다.

본사기자

## 우리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반드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루고야말것이다

남조선인터네 트신문 《사람일보》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 박해전이 서울에서 진행된 평화통일국제 토론회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할데 대해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은 두차례의 남북평화상봉을 통해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마련된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기야 할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대강이라고 하면서 남북공동선언들의 거대한 생활력 은 실천을 통해 힘있게 과시되었다고 언명하였다.

위대한 통일대강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있기에 통일위업실현의 날

은 결코 멀리에 있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 민족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있다고 그는 피력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하고 하면서 우리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반드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루고야말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꿈꿨던 청춘의 약속, 통일로 우릴 부르는...

얼마전 우리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보통강1동에 살고있는 강설향녀성의 집을 찾았다. 서른을 훨씬 넘겼어도 처녀시절의 아릿다운 모습이 엿보이는 그로 말하면 2003년 8월 남조선의 대구에서 열린 제22차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 응원단성원으로 갔던적이 있는 녀성이었다.

《그때는 통일이 다 된것만 같은 심정이였습니다.》

우리와 마주앉은 강설향녀성은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제가 평양연극영화대학에 다닐 때였는데 대구에 나가면서도 남녘인민들이 어떻게 맞아줄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에서 한달음에 대구로 달려와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쓴 구호들을 들고 환영해주던 남녘인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피는 역시 가를수 없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뭉클함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당시 대구라고 하면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

의 러발이라고 할만큼 보수경향이 강하고 그로 인해 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였다. 게다가 대구에서 일어난 지하철도사고까지 겹쳐 대회분위기는 시작전부터 침울했다.

그러나 공화국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도착하면 서부터 대구시의 분위기가 일신되고 온 남녘땅이 통일열기로 들끓었다고 한다. 특히 경기대회가 열리는 대구의 시민들은 북응원단이 오면 그들과 함께 응원한다면서 《아리랑응원단》을 뭉고 북녘의 선수들과 응원단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이를 두고 당시 남조선언론들은 《폭염에 녹았는지, 녹을 사람만 녹는건지, 여하든 《보수대구》가 녹고있다.》, 《보수적이라는 대구시민들도 그들을 따뜻한 동포애로 맞아주었고 그들의 만남을 통해 《남과 북은 하나》의 의미를 되새기고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오니 절로 호뭇해진다.》고 전했다.

강설향녀성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도 우리가 속삭이던 건물앞에 매일같이 손뭉음을 들고 나와 통일주체의 노래를 부르던 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잊을수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외세에 의한 분렬이 모두의 가슴에 얼마나 아프게 새겨진것인지 페부로 느껴졌습니다. 그 아픔을 가져버릴수 있는것이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남녘인민들이 《작은 통일》이라고 말했듯이 대구에서의 날과 달들은 이미 북과 남이 하나로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였습니

다.》

우리 응원단을 만나는 남녘인민들이 저마다 한번 손을 잡아보자고, 이들이 뭉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면서 강설향녀성은 이야기를 계속 하였다.

《서울대학교의 한 청년도 내 이름을 물더니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만나자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약속은 평양과 서울의 대학생들뿐만이 아닌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약속이였고 하나

로 된 강토에 통일을 하 루빨리 날리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13년세월이 흘러간 오늘에도 대구에서의 약속은 저의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꿈이 아니라 오늘의 실천이여야 합니다. 통일을 위해 청춘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저도 청춘시절에 새겨진 통일6.15의 추억을 오늘의 현실로, 통일의 오늘로 꽃피우기 위해 힘을이나마 바치겠습니다.》

강설향녀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대구에서의 약속, 그것은 실천으로 지켜야 하는 통일에 대한 기대이고 의지였다. 분렬된 조국이 통일된 조국의 주인공들이 청춘들을 부르는 목소리였다.

통일운동의 선봉에 청춘들이 기치를 들기를 바라는 시대의 부름! 이루지 못한 대구에서의 약속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심장을 아프게 두드리며 오늘도 삼천리강토에 메아리친다.

본사기자 강류성



#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민족공동의 합의를 존중하고 일관 하게 리행해나가야 합니다.》 김정은

###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 (3)

##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성된 내외정세는 조선반도에서 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이 시기 공화국정부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위한 혁신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 60(1971)년 8월 6일 남조선의 집권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 인사들과의 폭넓은 협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북남대화의 문을 열어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획기적이기도도 공명정대한 제안이였으며 각당, 각파, 각계각층을 다 포섭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애국애족적인 광폭협상방안이었다.

이렇게 되어 나라가 분렬된 이래 수십년만에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대화가 진행되게 되였고 주체 61(1972)년 5월에는 평양에서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5월 3일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만나주신 자리에서 민족의 분렬로 말미암아 오래동안 갈라져있던 같은 동포끼리 이처럼 만나고보니 매우 반갑고 감개무량하다고 하시며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표시하시였다.

한없이 넓으신 사랑과 포용력으로 지난날의 죄행은 일체 불문에 불이시고 늦게나마 통일대화에 나선 남측대표의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신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통일문

제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우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자신께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고 하시면서 이 세가지 원칙이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출발점으로, 기초로 된다는것을 사리정연하게 밝혀주시였다.

남조선대표는 자리에서 정중히 일어나 참모도 지당하다고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면서 남조선당국자도 이에 찬성할것이라고, 통일의 가장 큰 기등으로 삼을것을 확실히 맹세한다고 말씀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번 담화에서 북과 남사이에 중요한 공통점을 찾았다고, 가장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고 하시면서 남측대표의 소행을 다시한번 치하해주시고 사람은 애국자가 되어야지 매국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루를 살아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리로운 일을 해야 영예롭고 사는 보람이 있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주체 61(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이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되게 되였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의 채택, 그것은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 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민족대단결리념의 자랑찬 결실이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민족의 앞길에 대통운이 났다.》, 《김일성장군님의 도량과 애

국애족의 뜻은 하늘보다 높고있다.》, 《통일을 눈앞에 보는것만 같다.》며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인민들도 조국통일3대원칙을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안》,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통일제안》, 《누구에게나 다 접수될수 있는 애국애족의 방안》이라고 하면서 찬사를 보내였다.

그러나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반통일책동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은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지금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적대시하고 반대하면서 《체제통일》의 허황한 망상에 사

로잡혀 북남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 될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통일애국의 한마음한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해나서며 민족의 분렬이 가져온갖 오해와 불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인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로 온 삼천리강산이 통일에 대한 환희와 락관으로 뚝뚝이던 감격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언 44년의 년륜을 새기고있다. 감회도 새로운 1972년 7월 4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의 발표는 분렬과 대결의 동토대를 화해와 단합의 열풍으로 녹여낸 민족사의 첫 패거였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밝혀주는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에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

애가 깃들여있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어언 한세기를 가까이하는 민족분렬을 하루빨리 끝장내려는것은 전체 조선민족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애국과제이며 애가 깃들여있다.

민족분렬의 장본인이고 통일의 암적존재인 외세는 절대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선사하지 않는다.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배격하는 자주적립장을 가지지 않고서는 조국통일운동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의 비굴한 《통일외교》놀음은 통일을 지향하는 겨레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있으며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적상태로 몰아가고있다.

조국통일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도 우리 민족이고 통일문제해결의 주인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 민족자주를 실현하여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맞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

고 풀어나갈 때에만 조국통일운동은 자기의 궤도를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다. 평화통일원칙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근본방도를 밝힌 원칙이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속에서는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민족의 존재와 발전도 기대할수 없다. 미국과 그와 야합한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북침책전

쟁소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있다.

올해에도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을 50여일동안이나 발광적으로 벌리고 《참수

작전》, 《내륙으로의 진공작전》 등 북침광기를 날날이 드러냄으로써 평화를 바라는 우리 겨레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뒤덮어놓았다. 최근에는 그 무슨 3국어선의 불법어로활동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한강작전》이란것을 벌리였으며 군사적긴장이 첨예한 서해열점수역에서 군사적도발소동을 확대하고있다.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만이 들쭉거리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조국

통일과 민족번영의 근본담보인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온 겨레의 삶의 터전, 미래와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이다.

민족대단결은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조국통일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단결은 민족의 생존방식이며

민족의 위력은 곧 단결에 있다. 지나온 인류력사는 단결된 민족만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있고 민족성을 고수하면서 융성번영을 안아올수 있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민족의 대단결을 대신할수 있는 힘은 없다. 우리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 전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치면 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

일과 민족번영의 근본담보인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온 겨레의 삶의 터전, 미래와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이다.

민족대단결은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조국통일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단결은 민족의 생존방식이며 민족의 위력은 곧 단결에 있다. 지나온 인류력사는 단결된 민족만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있고 민족성을 고수하면서 융성번영을 안아올수 있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민족의 대단결을 대신할수 있는 힘은 없다. 우리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 전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치면 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

일과 민족번영의 근본담보인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온 겨레의 삶의 터전, 미래와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이다.

민족대단결은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조국통일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단결은 민족의 생존방식이며 민족의 위력은 곧 단결에 있다. 지나온 인류력사는 단결된 민족만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있고 민족성을 고수하면서 융성번영을 안아올수 있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민족의 대단결을 대신할수 있는 힘은 없다. 우리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 전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치면 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

일과 민족번영의 근본담보인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온 겨레의 삶의 터전, 미래와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이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은 6.15시대를 통하여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할 때에만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진리로 새겨안았다.

북과 남이 합의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들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외면할 권리가 없다.

정세가 달라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북남합의들이 백지화된다면 앞으로 북과 남이 그 어떤 합의를 하여도 소용이 없게 될것이라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는데 관계없이 북남합의들이 충실히 리행되었더라면 북남관계는 복잡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을것이며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는 이미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을것이다.

하지만 지금 북남관계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들을 어떻게 하나 부정하고 거세말살하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남조선에서 보수세력이 집권한 후 북과 남사이에 군사적충돌의 위기가 한두번만 조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위험천만한 사태를 몰아간 장본인인 남조선당국은 북남합의를 리행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이바지할 대신 가소롭게도 그 누구의 《핵포기》를 부르짖으며 제재와 《대북압박외교》 등 동족대결책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그러나 그 어떤 발악적책동도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리행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북남합의를 리행하여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우리 민족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기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오늘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그대로 구현되어 자주통일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7.4공동성명을 통하여 내외에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변함없이 높이 들고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하고야말것이다.

김정은

본사기자 김철민

## 변함없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다. 민족분렬의 장본인이고 통일의 암적존재인 외세는 절대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선사하지 않는다.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배격하는 자주적립장을 가지지 않고서는 조국통일운동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의 비굴한 《통일외교》놀음은 통일을 지향하는 겨레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있으며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적상태로 몰아가고있다.

고 풀어나갈 때에만 조국통일운동은 자기의 궤도를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다. 평화통일원칙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근본방도를 밝힌 원칙이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속에서는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민족의 존재와 발전도 기대할수 없다. 미국과 그와 야합한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북침책전

작전》, 《내륙으로의 진공작전》 등 북침광기를 날날이 드러냄으로써 평화를 바라는 우리 겨레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뒤덮어놓았다. 최근에는 그 무슨 3국어선의 불법어로활동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한강작전》이란것을 벌리였으며 군사적긴장이 첨예한 서해열점수역에서 군사적도발소동을 확대하고있다.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만이 들쭉거리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조국

통일과 민족번영의 근본담보인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온 겨레의 삶의 터전, 미래와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이다. 민족대단결은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조국통일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단결은 민족의 생존방식이며 민족의 위력은 곧 단결에 있다. 지나온 인류력사는 단결된 민족만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있고 민족성을 고수하면서 융성번영을 안아올수 있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민족의 대단결을 대신할수 있는 힘은 없다. 우리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 전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치면 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



#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다시금 뚜렷이 과시한 일대 장거

## 해내외동포들의 목소리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핵강국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 로켓 《화성-10》 시험발사에 성공한 특기할 사변은 지금 국내외동포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화성-10》의 거대한 동체가 세찬 불줄기를 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는 그 장쾌한 광경을 보면서 막 힘이 솟고 조선민족의 한없는 긍지감에 만세를 불렀다.

령도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세계의 몇몇 대국이라는 나라들밖에 못가진 위력한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쏘아올려 성공하였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악의 제국인 미국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있는 우리 조국이야말로 자주와 강국, 핵강국이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직장장 문수길

이번 《화성-10》 시험발사 성공은 우리 나라가 명실상부한 동방의 핵강국을 다시금 실증해주었다.

이번 시험발사성공으로 《B-2》 스텔스폭격기, 《B-52》 장거리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미군전략자산이 총집결되었다 하는 판도는 물론 미본토도 직접 타격할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공화국에 있어서 더이상 위협과 공포의 존재가 아니며 반

대로 공화국이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과 공포로 되고있다. 미국이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죄악을 총결산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조선인민군군관 리명제

힘있고 긍지높은 공화국의 한성원이라는 행복과 자부심에 또 한번 가슴이 뭉클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아무리 제재요, 압박이요 하지만 개짚는 소리만큼도 여기지 않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심한 길에서 한결음도 물러서지 않으며 그 길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펼쳐리라는것을 다시 한번 시위하였다. 어제는 수소탄시험과 인공지구위성발사에서 성공하고 오늘은 또 원수들을 전멸케 할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시험에서 보란듯이 성공한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승리이다.

오늘의 특대사변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은 진정 무비의 담력과 배짱, 결출한 령도력을 지니신 철세의 위인이시며 그이의 령도를 받는 한 최후승리는 문제없다.

평양시 모란봉구역인민위원회  
과장 박문철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 로켓 《화성-10》 시험발사의

성공은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서 일대 전기로, 핵무력완성의 정점이라고 본다. 다른 나라들 같으면 감히 엄두도 낼수 없는 조선의 막강한 군력앞에 놀라움과 경탄을 금할수 없다.

재미동포 박미자

지금까지 공화국의 핵능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소리들이 더러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성공으로 이런 궤변들이 쑥 기여들어가고말았다. 손바닥으로 해빛을 가리울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공화국이 당당한 핵강국, 미싸일강국임을 누가 부정할수 있겠는가.

조선은 절대로 빈말을 하지 않으며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대처할수 있다는것을 실물로 보여주었다.

재중동포 리수영

조선반도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본다.

북이 이번 대성공을 토대로 전략공격수단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해나가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시간이 없다. 아마도 미국으로서 하루빨리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의 핵보유를 전제로 한 조미평화협정과 핵보유국들의 핵군축문제에 나서는것이 최상의 방도라고 본다.

재오스트랄리아동포 홍연암

## 공화국의 핵공격능력을 힘있게 과시한 사변

얼마전 공화국에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 로켓 《화성-10》 시험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 아닐수 없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는 탄도로켓의 최대사거리를 모의하여 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되었다.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자행발사대를 리탈한 탄도로켓은 예정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1413.6km까지 상승비행하여 400km전방의 예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착륙되었다.

시험결과 체계를 현대화한 우리 식 탄도로켓의 비행동력학적특성과 안정성 및 조종성, 새로 설계된 구조와 동력계통에 대한 기술적특성이 확증되었으며 재돌입구간에서의 전투부열전딤특성과 비행안정성도 검증되었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공화국은 앞으로의 전략무기체계개발을 위한 확고한 과학기술적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이번엔 발사된 탄도

로켓의 비행궤적만 놓고도 공화국의 놀라운 국방과학수준과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군에 대한 전면적이고 현실적인 핵공격능력이 확실해졌음을 똑똑히 보았을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출로는 오직 하나,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위력을 바로 보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것뿐이다.

오늘 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하고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선 동방의 핵강국으로 솟구쳐올랐다. 미국이 《전략적인내》와 같은 대조선적대시정정책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공화국은 앞으로도 자위의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며 정밀화, 경량화, 지능화된 현대적이고 위력한 무기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게 될것이다.

최강의 핵억제력으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총파산을 선고한 공화국과의 대결에서 미국에 차례질것은 더욱 비참한 참패와 종말뿐이다.

자주정치, 선군정치로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의 압력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공화국, 누가 뭐라든 마음 먹은대로 인공지구위성도 쏘아올리고 최강의 수소탄도 보유하고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도 발사하며 존엄을 지켜가는 공화국이다.

사회주의의 보루, 반제자주의 성새,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로서 국제무대에서 높은 권위를 지닌 공화국을 인류와 세계는 경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있다.

하기에 미국이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공화국에 압살의 창끝을 들리었을 때에도 수십여개의 나라들이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공화국과 련대성을 강화해나가고있다.

올해초 공화국의 수소탄 시험이후 유엔에 주재한 제3세계나라 대표들이 조선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어 3세계의 립장을 대변해주면 좋겠다고 말한것은 인류의 지향이 무엇인가를 실증해준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이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 누가 자멸의 길로 가는가

공화국이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에서 성공한 소식이 미중유의 정치군사적해일을 일으키며 일파만파로 행성에 퍼져가고있다. 이러한 때에 남조선당국자들속에서는 피이썩게도 《공화국이 자멸될것》이라는 황당무계한 독설이 울려나오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제야무리 제재

## 《화성-10》 시험발사의 성공이 뜻하는 것은

이번에 《화성-10》의 독특한 기술적제원과 그 위력, 미군타격능력 등을 확인한 세계가 일순 충격의 도가니에 잠겼다. 사거리, 대기권재진입기술 등의 뚜렷한 과시로 공화국이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군에 대한 물론 미본토에 대한 공격능력도 확보했다는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화성-10》의 시험발사직후 《북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주고있다.》고 한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실토를 통해서도 위기에 직면한 미국의 속내를 잘 알수 있다. 위싱턴이 기침을 한번 있어도 서울이 독감을 앓는다는 말이 있다. 남조선은 위기의식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다.

핵을 가진 상대와 못 가진 상대, 미국의 물거미를 조이고 있는 상대와 미국에 빌붙어사는 상대. 저들지위를 자인하지 않을수가 없는것이다.

《북이 핵무력완성의 정점을 찍었다.》, 《이제는 전략적렬세를 인정할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북이 제재국면을 돌파하고 북미대화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크다.》, 《본토타격을 면하기 위해 남쪽을 배제한 채 미국이 북과 직접대화에 나서는 (통미봉남) 이 현실화될수 있다.》, 《하루빨리 (대

니, 《압박공조》니 하며 필사의 몸부림을 쳐도 없애지는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욱 강화되는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앞에 당황망조하고 다급해난자들의 숨넘어가는 비명소리고 맥 빠진 푸념소리이다.

이 더욱 강해지고 평화변영과 발전의 도약대가 더욱 튼튼해졌다는것이다.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이 자기의 존엄과 주권,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것은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미국의 침략적인 핵에 맞서 필수불가결로 핵을 보유하고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며 천신만고하여 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여온 공화국의 핵능력은 오늘에 와서 미국을 위협하는 웅장적억제력의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 미국정계에서 조선을 《전략적경쟁자》, 《강력한 핵적수》로 묘사하며 조미대화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보검을 드니 길을 비켰도다.》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간담을 서늘케 한 《화성-10》 시험발사의 성공은 공화국에 있어서 평화변영과 발전의 넓고 밝은 길을 열어준 사변중의 사변이다. 이제는 공화국이 강력한 핵공격능력이 마련해준 평화의 담보밑에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전략무기도 척척 만들어내는 자강의 정신과 무궁무진한 과학기술적잠재력, 무진장한 자원, 튼튼한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는 조건에서 그 어떤 제재도 맥을 칠수 없다.

지금 남조선의 군사전문가들속에서는 《북의 핵력사에서 올해는 커다란 전환점》이라며 《2016년 1월과 12월의 북의 핵과 미싸일기술의 차이는 대단히 클것》이라는 평이 나오고있다. 지난달들에 공화국이 수소탄시험에서 대성공하고 또 《화성-10》 시험발사에

서 성공한것처럼 끄떡없이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제재소동을 날려보내며 계속 발전과 진보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이들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가 내다보며 평하고있다.

그런데도 서빨리 《북의 자멸》을 운운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처사가 얼마나 가소로운가.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공화국을 없애버릴 야망을 못 버리고있으니 미련하고 가련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나. 남조선당국이 단말마적으로 그 무슨 《자멸》에 대해 췌쳐떨수록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던 못된 심보와 미련한것이 수포로 돌아온데서 온 극도의 패배의식과 공포심만 짙게 묻어나올뿐이다.

이 더욱 강해지고 평화변영과 발전의 도약대가 더욱 튼튼해졌다는것이다.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이 자기의 존엄과 주권,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것은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미국의 침략적인 핵에 맞서 필수불가결로 핵을 보유하고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며 천신만고하여 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여온 공화국의 핵능력은 오늘에 와서 미국을 위협하는 웅장적억제력의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 미국정계에서 조선을 《전략적경쟁자》, 《강력한 핵적수》로 묘사하며 조미대화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보검을 드니 길을 비켰도다.》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간담을 서늘케 한 《화성-10》 시험발사의 성공은 공화국에 있어서 평화변영과 발전의 넓고 밝은 길을 열어준 사변중의 사변이다. 이제는 공화국이 강력한 핵공격능력이 마련해준 평화의 담보밑에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전략무기도 척척 만들어내는 자강의 정신과 무궁무진한 과학기술적잠재력, 무진장한 자원, 튼튼한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는 조건에서 그 어떤 제재도 맥을 칠수 없다.

지금 남조선의 군사전문가들속에서는 《북의 핵력사에서 올해는 커다란 전환점》이라며 《2016년 1월과 12월의 북의 핵과 미싸일기술의 차이는 대단히 클것》이라는 평이 나오고있다. 지난달들에 공화국이 수소탄시험에서 대성공하고 또 《화성-10》 시험발사에

서 성공한것처럼 끄떡없이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제재소동을 날려보내며 계속 발전과 진보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이들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가 내다보며 평하고있다.

그런데도 서빨리 《북의 자멸》을 운운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처사가 얼마나 가소로운가.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공화국을 없애버릴 야망을 못 버리고있으니 미련하고 가련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나. 남조선당국이 단말마적으로 그 무슨 《자멸》에 대해 췌쳐떨수록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던 못된 심보와 미련한것이 수포로 돌아온데서 온 극도의 패배의식과 공포심만 짙게 묻어나올뿐이다.

자멸의 길로 가는 당사자는 《화성-10》이 솟구쳐올린 장쾌한 불줄기앞에 화들짝 놀란 남조선당국이 동에 닿지 않는 《북의 자멸》에 대해 웨쳐대고있는 때 미국과 서방은 물론 남조선내부에서도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대북제재》일변도에서 벗어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하루빨리 대화와 협상락에 마주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이전 미국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었던 미국 케이트로언 소의 한 상공연구원도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조선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낼수는 없다. 군사적행동은 무모한 도박이며 조선의 핵능력이 강화되고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수 있다. 선택안은 조선과 대화를 진행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것뿐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그에 이어 남조선정계에서도 당국이 《제재압박》에 모티브를 쓰지만 《제재성과》라는것은 찾아볼수가 없다. 당국의 반복대결정책은 이 땅에 화만 몰아온다, 당국이 《대북압박》에만 매달리지 말고 북과의 대화와 관계개선

이 더욱 강해지고 평화변영과 발전의 도약대가 더욱 튼튼해졌다는것이다.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이 자기의 존엄과 주권,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것은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미국의 침략적인 핵에 맞서 필수불가결로 핵을 보유하고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며 천신만고하여 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여온 공화국의 핵능력은 오늘에 와서 미국을 위협하는 웅장적억제력의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 미국정계에서 조선을 《전략적경쟁자》, 《강력한 핵적수》로 묘사하며 조미대화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보검을 드니 길을 비켰도다.》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간담을 서늘케 한 《화성-10》 시험발사의 성공은 공화국에 있어서 평화변영과 발전의 넓고 밝은 길을 열어준 사변중의 사변이다. 이제는 공화국이 강력한 핵공격능력이 마련해준 평화의 담보밑에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전략무기도 척척 만들어내는 자강의 정신과 무궁무진한 과학기술적잠재력, 무진장한 자원, 튼튼한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는 조건에서 그 어떤 제재도 맥을 칠수 없다.

지금 남조선의 군사전문가들속에서는 《북의 핵력사에서 올해는 커다란 전환점》이라며 《2016년 1월과 12월의 북의 핵과 미싸일기술의 차이는 대단히 클것》이라는 평이 나오고있다. 지난달들에 공화국이 수소탄시험에서 대성공하고 또 《화성-10》 시험발사에

서 성공한것처럼 끄떡없이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제재소동을 날려보내며 계속 발전과 진보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이들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가 내다보며 평하고있다.

자멸의 길로 가는 당사자는 《화성-10》이 솟구쳐올린 장쾌한 불줄기앞에 화들짝 놀란 남조선당국이 동에 닿지 않는 《북의 자멸》에 대해 웨쳐대고있는 때 미국과 서방은 물론 남조선내부에서도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대북제재》일변도에서 벗어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하루빨리 대화와 협상락에 마주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이전 미국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었던 미국 케이트로언 소의 한 상공연구원도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조선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낼수는 없다. 군사적행동은 무모한 도박이며 조선의 핵능력이 강화되고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수 있다. 선택안은 조선과 대화를 진행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것뿐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그에 이어 남조선정계에서도 당국이 《제재압박》에 모티브를 쓰지만 《제재성과》라는것은 찾아볼수가 없다. 당국의 반복대결정책은 이 땅에 화만 몰아온다, 당국이 《대북압박》에만 매달리지 말고 북과의 대화와 관계개선

이 더욱 강해지고 평화변영과 발전의 도약대가 더욱 튼튼해졌다는것이다.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이 자기의 존엄과 주권,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것은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미국의 침략적인 핵에 맞서 필수불가결로 핵을 보유하고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며 천신만고하여 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여온 공화국의 핵능력은 오늘에 와서 미국을 위협하는 웅장적억제력의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 미국정계에서 조선을 《전략적경쟁자》, 《강력한 핵적수》로 묘사하며 조미대화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자멸의 길로 가는 당사자는 《화성-10》이 솟구쳐올린 장쾌한 불줄기앞에 화들짝 놀란 남조선당국이 동에 닿지 않는 《북의 자멸》에 대해 웨쳐대고있는 때 미국과 서방은 물론 남조선내부에서도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대북제재》일변도에서 벗어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하루빨리 대화와 협상락에 마주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이전 미국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었던 미국 케이트로언 소의 한 상공연구원도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조선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낼수는 없다. 군사적행동은 무모한 도박이며 조선의 핵능력이 강화되고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수 있다. 선택안은 조선과 대화를 진행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것뿐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그에 이어 남조선정계에서도 당국이 《제재압박》에 모티브를 쓰지만 《제재성과》라는것은 찾아볼수가 없다. 당국의 반복대결정책은 이 땅에 화만 몰아온다, 당국이 《대북압박》에만 매달리지 말고 북과의 대화와 관계개선

이 더욱 강해지고 평화변영과 발전의 도약대가 더욱 튼튼해졌다는것이다.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이 자기의 존엄과 주권,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것은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미국의 침략적인 핵에 맞서 필수불가결로 핵을 보유하고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며 천신만고하여 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여온 공화국의 핵능력은 오늘에 와서 미국을 위협하는 웅장적억제력의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 미국정계에서 조선을 《전략적경쟁자》, 《강력한 핵적수》로 묘사하며 조미대화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보검을 드니 길을 비켰도다.》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간담을 서늘케 한 《화성-10》 시험발사의 성공은 공화국에 있어서 평화변영과 발전의 넓고 밝은 길을 열어준 사변중의 사변이다. 이제는 공화국이 강력한 핵공격능력이 마련해준 평화의 담보밑에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전략무기도 척척 만들어내는 자강의 정신과 무궁무진한 과학기술적잠재력, 무진장한 자원, 튼튼한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는 조건에서 그 어떤 제재도 맥을 칠수 없다.

지금 남조선의 군사전문가들속에서는 《북의 핵력사에서 올해는 커다란 전환점》이라며 《2016년 1월과 12월의 북의 핵과 미싸일기술의 차이는 대단히 클것》이라는 평이 나오고있다. 지난달들에 공화국이 수소탄시험에서 대성공하고 또 《화성-10》 시험발사에

서 성공한것처럼 끄떡없이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제재소동을 날려보내며 계속 발전과 진보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이들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가 내다보며 평하고있다.

자멸의 길로 가는 당사자는 《화성-10》이 솟구쳐올린 장쾌한 불줄기앞에 화들짝 놀란 남조선당국이 동에 닿지 않는 《북의 자멸》에 대해 웨쳐대고있는 때 미국과 서방은 물론 남조선내부에서도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대북제재》일변도에서 벗어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하루빨리 대화와 협상락에 마주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이전 미국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었던 미국 케이트로언 소의 한 상공연구원도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조선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낼수는 없다. 군사적행동은 무모한 도박이며 조선의 핵능력이 강화되고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수 있다. 선택안은 조선과 대화를 진행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것뿐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그에 이어 남조선정계에서도 당국이 《제재압박》에 모티브를 쓰지만 《제재성과》라는것은 찾아볼수가 없다. 당국의 반복대결정책은 이 땅에 화만 몰아온다, 당국이 《대북압박》에만 매달리지 말고 북과의 대화와 관계개선

이 더욱 강해지고 평화변영과 발전의 도약대가 더욱 튼튼해졌다는것이다.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이 자기의 존엄과 주권,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것은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미국의 침략적인 핵에 맞서 필수불가결로 핵을 보유하고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며 천신만고하여 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여온 공화국의 핵능력은 오늘에 와서 미국을 위협하는 웅장적억제력의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 미국정계에서 조선을 《전략적경쟁자》, 《강력한 핵적수》로 묘사하며 조미대화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자멸의 길로 가는 당사자는 《화성-10》이 솟구쳐올린 장쾌한 불줄기앞에 화들짝 놀란 남조선당국이 동에 닿지 않는 《북의 자멸》에 대해 웨쳐대고있는 때 미국과 서방은 물론 남조선내부에서도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대북제재》일변도에서 벗어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하루빨리 대화와 협상락에 마주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이전 미국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었던 미국 케이트로언 소의 한 상공연구원도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조선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낼수는 없다. 군사적행동은 무모한 도박이며 조선의 핵능력이 강화되고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수 있다. 선택안은 조선과 대화를 진행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것뿐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그에 이어 남조선정계에서도 당국이 《제재압박》에 모티브를 쓰지만 《제재성과》라는것은 찾아볼수가 없다. 당국의 반복대결정책은 이 땅에 화만 몰아온다, 당국이 《대북압박》에만 매달리지 말고 북과의 대화와 관계개선

이 더욱 강해지고 평화변영과 발전의 도약대가 더욱 튼튼해졌다는것이다.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이 자기의 존엄과 주권,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것은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미국의 침략적인 핵에 맞서 필수불가결로 핵을 보유하고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며 천신만고하여 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여온 공화국의 핵능력은 오늘에 와서 미국을 위협하는 웅장적억제력의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 미국정계에서 조선을 《전략적경쟁자》, 《강력한 핵적수》로 묘사하며 조미대화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보검을 드니 길을 비켰도다.》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간담을 서늘케 한 《화성-10》 시험발사의 성공은 공화국에 있어서 평화변영과 발전의 넓고 밝은 길을 열어준 사변중의 사변이다. 이제는 공화국이 강력한 핵공격능력이 마련해준 평화의 담보밑에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전략무기도 척척 만들어내는 자강의 정신과 무궁무진한 과학기술적잠재력, 무진장한 자원, 튼튼한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는 조건에서 그 어떤 제재도 맥을 칠수 없다.

지금 남조선의 군사전문가들속에서는 《북의 핵력사에서 올해는 커다란 전환점》이라며 《2016년 1월과 12월의 북의 핵과 미싸일기술의 차이는 대단히 클것》이라는 평이 나오고있다. 지난달들에 공화국이 수소탄시험에서 대성공하고 또 《화성-10》 시험발사에

서 성공한것처럼 끄떡없이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제재소동을 날려보내며 계속 발전과 진보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이들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가 내다보며 평하고있다.

자멸의 길로 가는 당사자는 《화성-10》이 솟구쳐올린 장쾌한 불줄기앞에 화들짝 놀란 남조선당국이 동에 닿지 않는 《북의 자멸》에 대해 웨쳐대고있는 때 미국과 서방은 물론 남조선내부에서도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대북제재》일변도에서 벗어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하루빨리 대화와 협상락에 마주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이전 미국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었던 미국 케이트로언 소의 한 상공연구원도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조선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낼수는 없다. 군사적행동은 무모한 도박이며 조선의 핵능력이 강화되고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수 있다. 선택안은 조선과 대화를 진행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것뿐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그에 이어 남조선정계에서도 당국이 《제재압박》에 모티브를 쓰지만 《제재성과》라는것은 찾아볼수가 없다. 당국의 반복대결정책은 이 땅에 화만 몰아온다, 당국이 《대북압박》에만 매달리지 말고 북과의 대화와 관계개선

이 더욱 강해지고 평화변영과 발전의 도약대가 더욱 튼튼해졌다는것이다.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이 자기의 존엄과 주권,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것은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미국의 침략적인 핵에 맞서 필수불가결로 핵을 보유하고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며 천신만고하여 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여온 공화국의 핵능력은 오늘에 와서 미국을 위협하는 웅장적억제력의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 미국정계에서 조선을 《전략적경쟁자》, 《강력한 핵적수》로 묘사하며 조미대화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자멸의 길로 가는 당사자는 《화성-10》이 솟구쳐올린 장쾌한 불줄기앞에 화들짝 놀란 남조선당국이 동에 닿지 않는 《북의 자멸》에 대해 웨쳐대고있는 때 미국과 서방은 물론 남조선내부에서도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대북제재》일변도에서 벗어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하루빨리 대화와 협상락에 마주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이전 미국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었던 미국 케이트로언 소의 한 상공연구원도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조선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낼수는 없다. 군사적행동은 무모한 도박이며 조선의 핵능력이 강화되고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수 있다. 선택안은 조선과 대화를 진행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것뿐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그에 이어 남조선정계에서도 당국이 《제재압박》에 모티브를 쓰지만 《제재성과》라는것은 찾아볼수가 없다. 당국의 반복대결정책은 이 땅에 화만 몰아온다, 당국이 《대북압박》에만 매달리지 말고 북과의 대화와 관계개선



동족에 대한 거부감이 뼈속까지 배인 남조선 집권자는 얼마전 《인권전문가》로 자처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을 만나 《북주민들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수 없다.》를 외치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주민들의 인권상황개선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

린 인권범죄자들의 철면피한 광대놀음이다. 오늘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끈질긴 제재와 압살책 동속에서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약동하는 젊음으로 만남시련을 뚫고 강

《인권》에 대하여 운운할수록 남조선사회를 인권불모지로 만든 보수집권세력들의 추악한 행적만 날날이 드러나고있다.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유신》독재의 때가 진하게 묻은 악명높은 파쇼

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민들을 마음대로 짓누르고 억압할수 있는 특권, 대중을 기만하고 우롱할수 있는 자유만이 있을뿐이다. 보수패당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라는 것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가장 부패한 반인민적사회의 진면모를 가리우기 위한 한갖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자살순위 1위를 기록하는 남조선사회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 가소로운 광대놀음

느니 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댔다. 그런가하면 통일부 장관 홍용표도 그 무슨 《인류의 보편적 가치》니, 《인간의 존엄성 추구》니 뭐니 하면서 감히 존엄높은 공화국의 영상에 흠칠을 해보려고 분수없이 놀아대었다.

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력사의 모진 광풍을 밀어내며 과감히 전진하는 공화국의 역센 기상앞에서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던 적대세력들은 전멸하고있다. 저들의 헛된 야망이 풍지박산난데 당황망조한 보수패당은 물에 빠진자지 푸레기라도 잡는 격으로 《인권》모략소동에 기대를 걸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 하지만 제아무리 발광을 하며 그 누구의

광들이며 강권과 전횡이 체질화된 폭군들이다. 이런자들이 통치하는 남조선에서는 과거의 피비린 암흑시대를 방불케 하는 무시무시한 살풍경이 매일 같이 펼쳐지고있다. 바른말 한마디해도 《간첩》이나 《중복》의 감투를 쓰고 감옥에 끌려가야 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해도 《테로세력》으로 몰리워야 한다. 애당초 남조선에는 한 줄도 못되는 매국노들이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

민족내부에 불화와 반목을 조성하고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우환거리는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악랄하게 역행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만고죄악을 철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천백배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 시작부터 혼란에 빠져든 20대 《국회》

남조선에서 제20대 《국회》가 태어나서 또다시 시작된 정치세력들간의 싸움으로 하여 민심의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최근 남조선정계에서는 제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대두한 《헌법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 《새누리당》내의 파들사이, 여야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해지는데 등 내부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헌법개정》필요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문제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각 정치세력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유력한 (대권주자)가 있는쪽에서는 현재 《헌법》을 고수하거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는쪽에서는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우고있다.》고 하였다.

이와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적극 찬성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헌법개정》문제를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주의주장을 고집하는 각 정치세력으로 하여 혼란에 빠진 《국회》의 현실태를 두고 《모두가 원하는 개헌, 모두가 다른 개헌》이라고 아우조소하고있다. 날로 악화되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리해관계에만 눈이 어두워 추악한 과벌싸움과 권력쟁탈전으로 시간과 날을 보내는 20대 《국회》를 두고 남조선민심은 《그나물에 그 밥》, 《19대 건, 20대이건 《국회》는 역시 《식물국회》》라고 비난하며 더러운 정치싸움에 침을 뱉고있다.

현 집권자의 정책실패와 독재정치로 하여 드러난 《대통령 5년단임제》의 한계와 4.13 《총선》을 통한 《여소야대》, 《3당체제》의 정치구도변화로 하여 현시기 남조선정치에서는 《헌법개정》문제가 정계의 중요문제로 떠올랐다.

이때 《헌법개정》으로 하여 자기의 《국정》과제들이 뒤로 밀릴것같아 경제가 우선이라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있다. 그러나 여야당내부에서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일치하게 이번 《화성-10》 시험발사가 핵보유국으로서 대외관계를 새롭게 만들며 판을 아예 바꾸겠다는것으로서 앞으로 조선반도정세가 새로운 전환적국면에 접어들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있다. 로씨야의 따스통신,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교도통신도 6월 23일 중앙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아빠 폐에 물이 찼다. 아빠는 지난해 11월 14일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물대포로 뇌뿌리와 대뇌절반이상이 손상됐는데 이제는 폐에 물이 찼다. 아빠는 농민 백남기다. 지난해 11월 밀과종을 끝내고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백남기씨와 농민들은 민중총궐기에 참여해 《쌀값정상화》를 위해였다. 씨를 뿌린 밭은 푸릇푸릇 자라나 수확할 때가 다 되었는데 아빠의 건강은 점점 더 가라앉고 있다. ... 뇌압이 높아 머리에서 는 주기적으로 피가 흐른

## 특대형민심사기극

얼마전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국토교통부를 내세워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경상남도 김해비행장을 《신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립장이란것을 발표하였다. 이로 하여 남조선정국이 벌떼 쭈셔놓은 것처럼 소란하기 그지없다. 왜 그렇지 않았는가. 알려진것처럼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은 2006년부터 논의되어오던 문제로 17대, 18대 《대통령》선거때 《대선》후보로 나선 리명박이나 현 당국자가 집권공약으로 내세운 핵심사항중의 하나였다. 2007년 《대통령》선거 때 리명박이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을 공약으로 내들고 경상도민심을 끌어당겨 당선되었지만 비행장후보지를 둘러싸고 경상남도 밀양과 부산시 가덕도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어 보수지역이 분열될 위험이 조성되자 2011년 4월 《환경파괴와 경제적효과성부족》이라

는 구실밑에 덮어버리고 말았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 때 현 집권자는 리명박 《정권》이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을 포기한데 대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것》이라느니, 《(정부)가 신공항건설을 포기하였지만 앞으로 필요한 계획》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자기의 집권공약으로 다시 내들었다. 그런데 집권이후에는 부지선정에서 공정성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유렵의 어느 한 나라 항공업체까지 끌어들이 후보지들에 대한 경제적효과성을 타진하는 놀음을 벌리다가 경상남도 밀양과 부산시 가덕도사이에서 후보지확정 문제를 놓고 또다시 리명박이 벌어진다면 심각한 정치적혼란을 초래하게 되자 이번에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을 아예 백지화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주요언론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6차례의 검사와 김해공항(확장)에 대해 부적합결정이 내려졌지만 비행장후보지를 둘러싸고 경상남도 밀양과 부산시 가덕도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어 보수지역이 분열될 위험이 조성되자 2011년 4월 《환경파괴와 경제적효과성부족》이라

김해공항확장론을 추가해 말았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2012년에 있는 《대통령》선거 때 현 집권자는 불과 3%의 차이로 권력을 차지하였다. 그 때 민심을 크게 자극한것이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이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승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말라》, 《거짓말도 크게 하라》는 세계적대독재자들의 권력욕에 따라 이미전부터 말썽거리로 되어오던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을 마치도 자기의 집권기간에 성사시킬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여론을 오도하여 권력을 가로챈것이다. 정보원을 《대통령》선거에 개입시킨것도 모자라 하늘이 내려다보는 대낮에 새빨간 거짓말까지 하며 권력을 가로챈 현 집권자의 치졸하고 파렴치한 행동이 이번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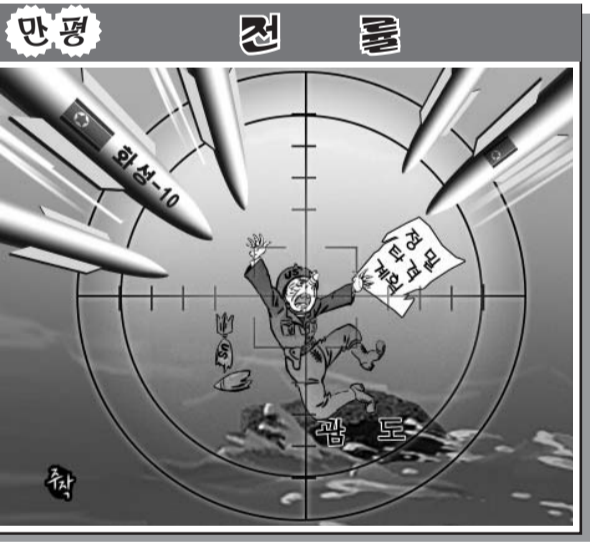
## 《사거리, 대기권재진입기술 과시》, 《미국위협 현실화》

남조선의 《KBS》, 《MBC》, 《연합뉴스》, 《노컷뉴스》, 《중앙일보》, 《문화일보》를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들은 사진자료를 빠짐없이 다 인용하고 《북, 중장거리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 성공 선언, 김정은위원장 현 리미씨일 《화성-10》, 《북 《화성-10》 표적은 판, 《태평양 미국놈 공격능력 확보》, 《사거리, 대기권재진입기술 과시》, 《미국위협 현실화》, 《〈한〉 반도상황변화 미국과 협상》, 《통미봉남 현실화 우려》 등으로 일제히 대서특필하였다. 언론들은 이번 시험발사는 지난 3월 김정은위원장께서 빠른 시일안에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시험발사를 실시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신데 따라 진행된것이며 북은 핵무력완성단계를 순

차적으로 밝어나가고있다 고 평하고있다. 남조선군부관계자들은 핵탄재능력이 큰 대륙간탄도미싸일을 고각으로 쏘아 400km 지점에서 략하시킬 경우 엄청난 속도로 내려쫓히기때문에 《〈한국〉형미싸일방어체계》로는 도저히 막을수 없다며 북이 핵무력완성의 정점을 찍었다, 핵물질확보와 기폭장치성공에 이어 장거리운반능력 등 핵무기 3대조건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르었다고 아우성치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일치하게 이번 《화성-10》 시험발사가 핵보유국으로서 대외관계를 새롭게 만들며 판을 아예 바꾸겠다는것으로서 앞으로 조선반도정세가 새로운 전환적국면에 접어들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있다. 로씨야의 따스통신,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교도통신도 6월 23일 중앙

거리전략탄도미싸일 《화성-10》 시험발사에 성공한 소식을 전하였다. 또한 일본의 《니혼게이지》는 《중장거리탄도미싸일발사 성공, 북조선언론이 보도》, 《요미우리신문》은 《북조선 전략탄도미싸일 시험발사 성공》, 《도쿄신문》은 《북조선 중장거리탄도미싸일발사 성공, 재돌입기술검증》이라는 제목으로,

인디아의 지뉴스TV방송과 이 나라신문들인 《힌두》와 《스레이츠맨》, 《힌두스탄 타임스》, 《아세안 에이취》는 《북조선의 김정은령도자 신형미싸일의 시험성공을 높이 평가, 미싸일로 미국의 태평양 기지들을 타격할수 있다고 지적》이라는 제목으로 우와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 본사기자



## 인권지옥에서 울리는 소리

## 해결되는게 아무것도 없다

다. 피가 나면 궤멸은 일 이 반복된다. 감염수치도 중환자실의 다른 환자에 비해 높아 계속 항생제를 처방하고있다. 5월 14일은 백남기씨가 쓰러진 때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의 건강상태는 점점 나빠지고있지만 변한건 아무것도 없다. 살수차를 운용한 경찰책임

자, 행정자치부 책임자, 《정부》책임자, 하다못해 여당의원 그 누구도 병원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강진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고발한 형사고발장은 진척이 없다. 담당검사가 세번째 바뀌었고 세번째 담당검사가 누구인지는 고발인 가족조차 모른다. 답

답한 마음에 백도라지는 3월부터 주말마다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갇춰진 사법체계안에서 국민이 할수 있는건 다 했어. 그런데 해결되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경찰의 직사살수행위와 《살수차운용지침》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도 이미 청구했다.

사법절차안에서 해결되지 않자 결국 정치의 문을 두드렸다. 5월 11일 백남기씨가 쓰러진지 정확히 180일 되는 날 《백남기사건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줄것》을 제20대 《국회》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금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교체되는 시기여서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아버지건강은 나빠 지는데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두렵다.》 (《한겨레》 2016년 5월 23일호에서 전재)